

'중생의 눈' 버리고 '부처의 눈' 을 뜨자

④ 돌부처는 언제 눈 뜨나?

폭염 속에 하염없는 망치소리

백담사 계곡에는 수없이 많은 돌탑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각들을 주워서 쌓은 것입니다. 그 탑들을 볼 때마다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저 탑을 쌓는 짧은 시간동안 무엇을 기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석재공장에 진열된 석불과 석탑 등의 석조물들을 볼 때도 저 부처님과 탑도 어느 도량인가 모셔져 중생의 귀의처가 되고 공양도 받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자리 잡을 도량을 기다리고, 눈 뜨는 순간[斷眼]을 기다리고, 귀의해 찾아오는 중생들의 기도와 공양을 기다립니다.

폭염의 날들. 장마전선이 남하(南下)한 며칠의 무더위 속에 땀벌 보다 강열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쇠망치로 정(釘)을 치는 소리와 정 끝이 돌을 파는 소리가 동시에 터집니다. 화강암의 표면에 튀어나가는 돌조각 뒤로는 구름 같은 먼지가 흩날립니다.

행자(行者)가 찾아 간 곳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인 석장(石匠) 이재순(李在洵·58) 선생의 석조공예관입니다. 바깥에는 키가 큰 석불상과 석탑이 즐비하고 안에는 작은 부처님들과 나한님들이 빼곡합니다. 그리고 눈집작으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연장들이 가지런히 벽에 걸려거나 공구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재순 선생이 한 구석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기온은 30도를 넘는데 작은 선풍기 한 대를 등 뒤에, 그것도 좀 멀찍하게 놓았을 뿐입니다. 한참을 서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석장의 바쁜 손길을 따라 나한님 한 분이 화강암의 그 단단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는 참입니다. 다소 굽은 허리와 편안한 앉음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매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성과 미완성 그리고 생명력

"돌과 쇠는 다 강합니다. 강한 것이 만나 부드러운 것을 만들어 냅니다. 강한 것은 돌과 쇠의 속성이지만, 그것을 다듬는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본래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재순 석장의 작업실, 벽에 각종 도구가 걸려있다.

40년 넘는 시간을 돌과 함께 살아 온 이재순 석장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강함에 부딪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아무리 강하게 다가와도 자신의 본래 마음이 부드러움임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가끔 미켈란젤로를 생각합니다. 그는 '나는 신(神)보다 더 잘 만들겠다'며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도전한 것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지요. 자신의 작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갈망하던 그의 진면목은 완성자보다는 미완성으로 남겨 둔 작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에서 생명의 묘한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의 참모습은 미완성에서 발견하는 경이로운 자각이었다고나 할까요?"

생명력. 이재순 석장은 조각에서 생명력이 결여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잘라 말합니다. 한낱 돌덩이가 부처가 되고 탑이 될 수 있는 것도 '생명력'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릴 적 괴로운 마음을 싸안고 석굴암에 갔습니다. 돌 일을 시작하지 4년이 되는 때였는데, 그 일에 희의를

석장은 돌을 부처로 탑으로 만드는 이 채석에서 완성까지 단계가 모두 수행 돌조각, 본래 부드러운 마음 찾는 과정

느끼고 떠난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 상처 난 마음에 들어찬 석굴암의 부처님은 '나는 이승에서 결코 돌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보다 훌륭한 조각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이후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문화재 복원사업과 대형 불사에도 수차례 참가한 이재순 석장은 아직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꿈을 하늘에 걸어 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녹여 두었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요."



이재순 석장이 그동안 조성한 나한상들



돌이 나한이 되기 위해서는 석장의 불성이 돌에 온전이 스며야 한다는 이재순 석장이 나한상을 만들며 조각 삼매경에 빠져있다.

손을 벗어나면 작품은 나오지 않는다

이재순 석장이 심기일전하여 작업에 몰입할 때, 그러니까 일에 한참 몰이 오를 때 뜻밖에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찾아 왔다고 합니다.

그 역시 소설가로서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외국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당신네들은 어째서 당신네 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적지 않게 받았으면서 석공 일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인호 선생은 나름대로 여러 분야의 우리전통 유산들에 대해 공부를 하는 중이었고 석조유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직접 작업 현장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재순 석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 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깨우친 것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고 그로 인해 더 폭넓게 공부하고 연구하며 작업을 하는 계기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분과의 대화를 통해 나 스스로 전통기법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겼어요. 시류에 따라가는 '작업'이 아니라, 한 점을 남겨도 후손들에게 빛 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굳어진 것입니다."

돌 일에서의 전통이란 수작업을 뜻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돌을 떼어내거나 캐내는 일에서 완성된

조형물이 나오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오로지 손으로 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반복되는 망치질의 지루함이 아니라, 쪼아내고 갈아내는 동안 수없이 애초에 목적인 형상을 그려 넣어야 하므로 흔들림 없는 초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동탑의 복원은 기계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맛도 없고 감동도 없는 조형물 하나가 만들어졌을 뿐, 천년 저 너머 백제인들의 숨결을 느낄 문화유산은 드러나지 않았습니. 손으로 쪼고 갈면서 혼을 바칠 때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곳에 정교한 비율과 물욕을 뛰어넘는 숭고한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단계에 맞게 도구를 쓰는 것도 수행

돌이 부처가 되고, 돌이 탑이 되는 과정은 지난한 수행입니다. 무명번뇌에 갇혀 있던 중생이 자성을 밝히 불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구도의 행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이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을 만지는 석장의 수행이 돌을 부처가 되게 하고 돌을 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돌을 만지는 매순간이 '본래 부드러운 마음'을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돌 일에는 거처야 할 여러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알맞은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돌을 선택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과정에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석불을 조성한다면, 그 석불이 어느 도량에 모셔지게 되고 그 도량은 어떤 곳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반영하지 않으면 좋은 불상이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이 수행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돌부처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상으로서의 돌부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성하는 석장의 마음이 부처를 닮아 있고, 그 앞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중생의 마음이 부처를 닮아 있을 때 비로소 돌부처는 돌부처가 아닙니다. 석장은 돌을 다듬어 불상(佛像)을 만들지만, 그 형상에 비친 온 중생의 마음은 불성(佛性)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재순 석장의 공예관에는 수많은 돌부처가 있습니다. 전국의 석재공장에도 아직 눈뜨지 못한 돌부처가 비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며 서 있습니다. 그 많은 돌부처가 다 눈을 뜨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이 오면, 중생들도 다 '부처의 눈'을 뜰 수 있겠지요? 글·사진·일면태(사인)·본지논설위원



© photograph by inja

7 일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 찾기

봉녕사 여성 단기출가

아름답고 청정한 절

참가대상

모든 여성 / 20명

참가비

일반인 20만원
학생 10만원

일정

7박 8일
7월 27일 (금)부터
8월 3일 (금)까지

프로그램

팔관재계 수계, 예불, 발우공양, 다도, 명상 사찰음식, 문화, 교리 강의

문의 및 안내

봉녕사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m.bongnyeongsa.com

템플스테이 실무를 함께 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